

책 읽어 주는 할머니

김인자 글 · 이진희 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가족의 소중함 느끼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가족사랑, 관계, 소통, 도전, 꿈, 성장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성	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글자를 읽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손녀딸은 매일 밤 전화로 그림책을 읽어 드립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한글을 깨쳤던 자신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아이는 1년 동안 할머니께 책을 읽어 드립니다. 할머니의 팔순잔치날에 손녀딸이 그 동안 읽어주었던 그림책을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직접 읽어준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딸과 친정엄마 사이의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 쓴 글입니다. 가족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을 통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작가는 은은한 유화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께 읽어 드리는 책 속에 이야기를 또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날기를 꿈꾸는 펭귄의 이야기이지요. 할머니가 책을 끝까지 다 읽을 때 비로소 펭귄도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펭귄의 그림자를 ‘새’로 그려 넣습니다. 그림책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입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골라 책 내용에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읽어 줄 수 있다.

■ 수업 준비

가족은 한 사람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인 동시에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도착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빠르게도 변해가며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태어나고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쁜 일상과 변해가는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여유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책 읽어 주는 할머니』는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입니다. 엄마가 읽어준 그림책으로 한글을 깨우친 손녀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께 매일 밤 책을 읽어주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어찌면 너무 가까이 늘 존재하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80세 생일날, 가족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할머니의 꿈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업 준비물

불임종이, 관련 영상, 관련 도서 또는 표지사진, 색연필, 사인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그림책과 만나기 - 표지 보며 느낌 나누기 - 속표지 보며 이야기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고 내용 확인하기	1차시
읽은 후	그림책과 나의 삶 연결하기 - 내가 만약 글자를 모른다면? -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 내가 읽어주는 그림책	3차시

읽기 전

1. 그림책과 만나기

■ 표지 보며 느낌 나누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이예요.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여자 아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색깔이 부드러워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 이 책은 작가가 직접 겪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이라고 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 속표지 보며 이야기 예상하기

- 먼저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여요.

할머니가 책을 들고 있어요.

할머니 뒤에 펭귄이 숨어있어요.

- 할머니는 왜 한복을 입고 있을까요?

예: 나이가 많아서요.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으니까요.

할머니가 한복을 좋아하셔서 입었을 것 같아요.

결혼식처럼 중요한 날이라서 한복을 입었을 것 같아요.

- 할머니는 왜 책을 들고 있을까요?

예: 제목이 '책 읽어 주는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려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웬지 그림책을 만든 사람이 할머니인 것 같아요.

- 할머니 뒤에 숨어 있는 펭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할머니가 펭귄을 좋아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들고 있는 책에 펭귄이 있어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손녀가 펭귄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펭귄 이야기를 읽어줄 것 같아요.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고 내용 확인하기

- 아이가 할머니에게 매일 밤 책을 읽어드리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할머니가 글자를 읽을 줄 모르셔서요.

옛날에 엄마가 책을 읽는 소리를 할머니가 좋아하셨다고 해서요.

할머니께 매일 책을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글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아이는 왜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걸까요?

예: 할머니가 글자를 모르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할머니를 사랑하니까요.

- 아이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깜깜하던 세상이 환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눈이 안보이면 캄캄한 것처럼 글자를 몰라서 캄캄했는데 글자를 알게 되어서 환해진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어드리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세상이 환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 매일 밤 할머니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 주는 아이에게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예: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혼자서 살면서 외로울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 할머니는 왜 팔손 잔치에 온 가족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싶었을까요?

예: 할머니가 글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글자를 알고 나서 뿌듯해서요.

옛날에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서 가족들에게 책을 못 읽어준 게 미안해서요.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할머니가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할머니도 다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 그림책을 들고 있던 할머니 뒤에 왜 펭귄을 그렸을까요? 할머니와 펭귄이 닮은 점이 있나요?

예: 할머니랑 펭귄은 둘 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할머니가 펭귄 이야기를 들으면서 펭귄을 구해주고 싶어 했는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게 할머니를 구한 것 같아요.

원래 펭귄은 뒤통뒤통 걸으니까 웬지 할머니가 글자를 퍽퍽 읽으실 것 같아요.

날 수 없는 펭귄이 날아가는 것처럼 할머니가 글자를 배워서 책을 읽으신 게 기적 같아요.

할머니랑 펭귄이 둘 다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읽은 후

1. 그림책과 나의 삶 연결하기

■ 내가 만약 글자를 모른다면?

-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서 세상이 캄캄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이 있나요?

예: 숙제를 안했는데 검사를 한다고 하면 놀라서 눈앞이 캄캄해요.

친구가 새로운 게임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를 때 세상이 캄캄해요.

겪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야하면 세상이 캄캄할 것 같아요.

- 할머니는 왜 글자를 모르실까요?

예: 할머니가 글자를 배우지 못해서요.

옛날에 가난하면 학교를 못 다닌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도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간 것 같아요.

- 만약 여러분들이 할머니처럼 글자를 모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울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글자를 모르면 영화도 못 보고 책도 못 읽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글자를 배우지 못하고 살다가 할머니가 되어서 공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TVN 유퀴즈온더블럭 제38화 너의 의미
'이름조차 쓰기 힘들었던 자기님이 한글을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 편



TVN 유퀴즈온더블럭 제88화 담다
'갓 배운 한글로 요리책에 인생을 담다' 편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권정자 외 19명, 남해의 봄날



이미지출처: 남해의 봄날 블로그

- 글자를 몰라서 한글공부를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할머니들이 글자를 모르실 때 엄청 힘들게 사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공부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못하는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예: 할머니 집에 가면 실컷 놀 수 있어서 좋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저를 강아지라고 불려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되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여쭙어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 내가 읽어 주는 그림책

-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 준 적이 있나요?

예: 동생한테 읽어 줬어요.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친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읽어 준 적 없어요.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 준 적은 있나요?

예: 유치원 때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셨는데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동생 태어나기 전에는 책을 많이 읽어 줬는데 지금은 아기 때문에 바빠서 못 읽어 줘요.

할머니가 책을 읽어 준 적이 있는데 글자가 틀린 적이 있어서 웃겼어요.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 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까요?

예: 즐거워요, 행복해요, 따뜻해요. 등

- 여러분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꾸준히 책을 읽어 준다면 누구에게 읽어 주고 싶나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동생, 1학년 동생들 등

- 여러분이 책을 읽어 준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을 읽어 주고 싶은가요?

예: 우리 할머니께 『책 읽어 주는 할머니』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를 읽어 주고 싶어요.

동생한테 『괜찮아』를 읽어 주고 싶어요.

-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 주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까요?

예: 제가 읽어 주고 나면 선물을 준 것처럼 뿌듯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책을 읽어 줄 때 엄마가 좋아하면 기쁠 것 같아요.

- 책을 읽을 때 듣는 사람이 재미나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등장인물의 목소리나 행동을 흉내를 내면서 읽어 줘요.

이야기 내용과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 줘요.

- 책을 직접 읽어 준 다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기뻐했어요.

엄마가 잘 안 듣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해서 속상했어요.

아직 글자를 모르는 동생한테 읽어 주고 나니까 뿌듯했어요.